벨칸스의 마지막 생존자. 황제가 뱉은 짧은 말이 마치 물에 던져진 큰 돌멩이처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벨칸스의 반역과 숙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법한 나이대의 자일수록 더더욱. 실리카는 벨칸스의 숙청 당시 유모의 포대기에 쌓인 갓난 아기였다. 그럼에도 황제가 던진 말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악녀 엘레니아 벨칸스의 흑마법으로 제국이 엉망이 되었고 그 여파는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 악녀의 사악한 혈육이 아직 엘하임 제국 어딘가에 남아있었다니.

“신 프라기안, 폐하를 따라 중대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명망 높은 기사이자 마검사 마리네스 프라기안이 헬리스 황제 앞에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를 따라 하나 둘 다른 인물들도 마리네스의 행동을 따라 황제에게 충성을 약속했다. 제국의 악. 제국의 수치를 직접 뿌리 뽑으러 간다는 자부심이 적지 않은 인원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었다. 이중 가장 가벼운 마음을 지니고 있던 실리카도 주변 공기를 읽고는 황급히 마리네스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장엄하게 고개를 숙인 군인들을 바라보는 황제의 무기질적인 자안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열 두명의 엄선된 군인과 신분을 숨긴 한 명의 황족이 작고 비루한 시골의 마을로 향했다. 목적지로 바로 향하는 기차가 없는 탓에 그들은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한참 말을 타야만 했다. 가는 길 중간중간 황제를 제외한 열 두명의 군인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도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비공정에 관한 이야기나, 마물 퇴치에 효율적인 마법진의 배치 등의 군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아델라이즈 공작 영애 자살 사건 등의 세속적인 소문. 때로는 마리네스 프라기안의 막내 아들과 같은 자신의 집안 사정 등… 다양한 화제가 섞여 있었다.

“다음에 아드님을 다른 귀족 자재들께 소개시켜주세요 프라기안 공. 제가 자리를 만들어 드릴까요?”

“마음은 고맙다만 유겐 불효자놈이 워낙 바빠서 말이야. 3황자님 궁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부모 얼굴도 잊어버린 것 같다네.”

“어머, 그 나잇대 남자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뭐. 친구와 놀고 싶어서 정신이 없을 나이 아니던가요? 자연스러운 일이니 마음 상하지 마시기랍니다.”

“에이, 이 사람아! 황자님하고 우리 불효자놈이 친구라니 농담으로라도 그런 불충한 소리 말아.”

천하의 무인 프라기안 공이라도 자식 이야기 앞에서는 평범한 부모였다. 모인 열 두명의 사람들 중 가장 말단인 실리카는 대충 대화에 맞장구치며 영혼 없이 웃었다. 사회 생활 잘하기 참 힘들었다.

‘시덥잖은 소리만 가득 하긴.’

대화가 어느정도 수그러들자 실리카는 기차의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오리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다양한 대화 주제였으나 결국 그들이 모인 본질에 대해서는 겁쟁이같이 입 하나 벙긋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녀가 보기에 모인 이들 전부 벨칸스의 유일한 생존자를 두려워하는 것도 같았다. 참이지 요상한 일이었다. 역사 속의 악녀는 수많은 마물들을 다룰 수 있는 강한 흑마법사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유일한 혈육 또한 동일할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전부 동일한 모양의 가지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같은 벨칸스라고, 그것도 20년이 넘게 조용히 살아온 자가 오직 벨칸스라는 이유만으로 악녀 엘레니아와 동일하게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허나 실리카는 자신의 생각 중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일찍 죽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래 살아서 열정적으로 마법 연구를 해야지, 입을 잘못 놀려서 하루아침에 처형대로 끌려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생각을 알 수 없는 황제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상 어디서나 말 조심을 해야했다.

기차와 말의 강행군을 한 탓에 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로 당도할 수 있었다. 세실 마을이었다.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한 눈에 보아도 값비싸 보이는 말과 의복을 입은 열 셋 사람의 등장에 동요했다. 갑작스러 들이닥친 이들은 자신들이 중앙에서 온 고귀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다. 고급 직물로 만든 후드를 푹 눌러써 자안을 가린 황제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을 구석의 교회로 향했다. 실리카는 내심 벨칸스의 핏줄을 찾는 나침반이라도 가진 듯한 황제의 행동이 신기했으나 자신의 호기심 어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장수, 장수. 무조건 장수가 목표다! 이 말을 수없이 새기며 자신의 마도구를 조심스레 손에 쥐였다. 황제의 심기를 거슬려 이야기 속 악녀 엘레니아와 동일한 길을 걷고 싶지는 않았다.

“일레인 벨칸스는 어디 있지?”

시셀 마을에서 처음으로 황제가 입을 열었다. 질문을 받는 상대는 교회의 잡심부름을 하는 젊은이로 황제가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았었다. 황제는 냉정했지만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르거나 남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실리카는 잡심부름꾼 젊은이가 무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숨어 살면서 설마 실명을 쓰겠어? 분명 ‘그게 누구입니까?’ 따위의 대답을 하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황제는 없는 사람인 양 그 젊은이를 지나칠 터였다. 분명 그랬어야 하는데…

“…!”

“엄호해라!”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 아무것도 몰라 보이던 잡심부름꾼 젊은이는 제법 위험한 기운을 풍기며 황제를 향해 단검의 끝을 겨누고 있었다.

“마검…!”

실리카는 놀라서 소리쳤다. 뛰어난 마법사인 그녀는 마력의 흐름에 민감했다. 심부름꾼 젊은이가 휘두른 단검에 실린 상당한 마력을 느끼고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을 느꼈다. 일반적인 속성 마법의 마력도 아닌 무려 흑마법의 마법이었다. 실리카는 본능적으로 얼음의 벽을 만들어 황제를 악한 흑마법으로부터 보호했다. 마력이 실린 단검의 공격 단 한 번만에 얼음 방패는 쩌적 갈라져 틈을 보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른 이들이 맹공격을 가했으며, 수에 밀린 심부름꾼 젊은이는 쉽게 생포되었다.

“고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캐보겠습니다.”

마리네스 프라기안의 말에 황제는 느긋이 고개를 저었다.

“되었다. 답은 얻었어. 마지막 벨칸스는 확실히 저 교회 안에 숨어있나보군.”

무기질적인 자안에 일순간 생명력 어린 빛이 맴돌았다. 헬리스 황제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어 마치 아이가 나뭇가지로 벌레를 찌르듯 가볍게 생포된 심부름꾼을 찔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교회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한 명의 생명이 사그라들었다.

“들어가지.”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황제를 따라 열 두명의 군인이 긴밀하게 그를 따랐다. 교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겁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하며 벌벌 떨고 있었다. 어느 일반 시민이 대낮 교회에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고 멀쩡할 수 있을까. 당연한 반응이었다. 황제는 다시 손을 뻗어 교회의 다른 사람을 가리켰다. 에밀리였다.

“일레인… 아니지, 여기서는 벨이라고 부르던가? 그는 어디 있지?”

에밀리는 벌벌 떨면서 눈을 도르륵 굴렸다. 당연하게도 벨은 현재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본디 내향적이고 얌전한 인물로 기도 시간 외에는 본당으로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었다. 에밀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벨은 여기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내뱉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았다.

“베… 벨 형제님은…”

“데려와.”

뒷말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황제는 에밀리의 말을 끊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잠시간의 정적. 스태인드 글라스를 통해 스며들어오던 햇빛이 구름에 가려졌고 교회 내부에 뿌연 그림자가 깔렸다. 후드 아래 빛을 잃은 황제의 자안 위로도 어둠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에밀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벨이 있을 성직자 생활원으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황제를 엄호하는 열 두명의 군인들은 내심 긴장을 하며 벨칸스의 마지막 생존자를 기다렸다. 마지막 생존자는 어떤 사람일까? 위험할까? 아까의 심부름꾼은 벨칸스의 끄나풀이었나? 궁금한 것은 산더미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궁금증 중 일부가 해소되었다.

“… …”

외소하고 볼품 없는 중년 여성이 유령처럼 열 세명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고개를 푹 숙인 여자는 마르고 우울해 보였으며 한쪽 다리를 불편한 듯 절고 있었다. 성직자의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아름답다고 알려진 악녀와 사뭇 다른 생김새를 지니고 있었다. 슬그머니 든 얼굴 반쪽은 어찌 된 일인지 엉망으로 어그러져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신을 칭송하는 거대한 조각 아래서 이물질처럼 못박혀 누구 하나 해칠 의지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 꽤나 안쓰러웠다.

‘안쓰러워…? 미쳤구나 실리카 레반.’

실리카는 자신의 생각에 화들짝 놀라며 손톱으로 제 손등 위를 콕 꼬집었다. 정신 차리자, 저 사람은 벨칸스의 사람이다! 악의 씨앗이다!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니 정신이 들었다. 황제는 자신 앞에서 묵묵히 호위하는 열 두명의 사람을 지나쳐 선두로 나아가 여자의 멀쩡한 한쪽 눈과 시선을 맞추었다. 그는 여성의 생명력 없는 몰골을 감흥 없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일레인 아이슬라 벨칸스.”

“… …”

“노엘의 함은 어디에 숨겼지?”

헬리스 황제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교회의 내진 안에서 진동하며 울려퍼졌다. ‘노엘의 함’이라는 단어에 함께 온 사람들이 크게 눈을 부릅떴다. 벨칸스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유실된 황실의 보물, 성자 노엘의 함이 여기서 언급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실리카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폐하가 마지막 벨칸스를 찾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벨칸스가 노엘의 함을 가지고 있었어! 반응을 보니 프라기안 공도 몰랐던 거 같은데, 수상한 걸.’

한참을 벙어리처럼 서있던 중년의 여자, 일레인은 황제의 시선만큼이나 생명력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듣지 못할 질문을 하기 위하여 먼 길 헛걸음을 하셨군요.”

“헛걸음이라 생각하나?”

황제를 대신하여 일레인을 상대하기 위해 몇몇의 기사와 마법사가 나섰다. 그러나 황제는 가볍게 팔을 올려 끝까지 그들을 뒤로 물러세웠다. 마리네스 프라기안이 걱정스레 황제에게 시선을 못박았으나 개의치 않는 듯했다.

“제 소중한 자매는 황제께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엄하군요!”

꿋꿋한 일레인의 태도에 실리카와 함께 온 마법사 하나가 이를 갈았다. 물론 그녀는 눈꼽만큼의 신경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일레인은 문득 요정의 말이라고도 알려진 고언을 입에 담았다. 고언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말은 놀랍게도 악녀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었다.